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락교회 초등/소년부**

초등부
소년부
약속

1. 예배시간 **10분 전**에 와요.
2. 예배시간 만큼은 **하나님께 집중**해요.
3. 이 책을 **소중히** 여기며, 이 책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요.
4.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요.
5. 예배를 드린 후 **주변을 정리**해요.

“이렇게 활용하세요.”



위드 - 이 책은 매 월의 주제에 따라 진행되는 초등/소년부 교육내용에 대한 책입니다.



Memory Time
반 모임 때 선생님과 함께 나눈 내용입니다.



Sweet Time - 온 가족이 함께 하는 식사시간을 일주일에 한 번 정하여서 주일에 배운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God's Time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QT입니다.



Morning Time
아침 시간에 자녀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Bed Time - 잠자기 전 자녀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 Morning Time과 Bed Time은 매 월 마지막 주에만 제공됩니다.



FUN FUN PLAY
친구들이 재미있게 말씀을 접할 수 있습니다.

contents

교육 내용04

첫째 주

분반 모임 Memory Time06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07

어린이 QT God's Time08

둘째 주

분반모임 Memory time18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19

어린이 QT God's Time20

English Bible Study28

셋째 주

분반 모임 Memory Time34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35

어린이 QT God's Time36

넷째 주

분반 모임 Memory Time46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47

어린이 QT God's Time48

편편 플레이

내가 생각하는 교회 58

성경 퍼즐퀴즈 59

워드큐티스티커 61

교육활동 63





암송 구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

♥첫째주♥

“성실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121편 4절)

* 성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도 성실한 삶을 살아요.

♥둘째주♥

“예수님의 성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누가복음 4장 43절)

*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성실하게 전해요.

♥셋째주♥

“요시아의 성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열왕기하 23장 25절)

* 하나님 말씀을 성실하게 실천해요.

♥넷째주♥

“우리에게
말기신 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사도행전 20장 24절)

*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기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요.

실천 내용

1. 이번 달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일을 미루지 말고 성실하게 해내는 친구들이 되어요!
2. 자신의 주변에게 예수님을 성실하게 전하는 일에 도전해보아요.



10월 첫째주
2020년 10월 4일~10일



Memory Time



성실하신 하나님

첫째주

♥ 주제 : 성실

♥ 암송구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121편 4절

♥ 오늘의 주제 : 성실하신 하나님 ▷시편 121:1-8

성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도 성실한 삶을 살아요.

★ 말씀 나눔 (이 질문으로 친구들과 토의해 보세요)

- 1 성전을 향해 올라갔던 사람들은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나요? (2절)
- 2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기 위해 무엇을 하시나요? (4절)
- 3 여호와는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5절)
- 4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 주시고, 어떻게 해주실 것을 약속해주시나요? (7절)
- 5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도 성실하게 살겠다는 다짐을 담은 <한줄 기도문>을 작성해보아요.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성실’은 정성스럽고, 참된 것을 의미해요. 즉, 거짓 없고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성실’이라고 할 수 있지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성실’이라는 성품을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실’은 우리를 거짓 없이 사랑하시고, 한결같이 돌보시며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며 부른 찬양을 통해 성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명절이 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먼 길을 떠났어요. 그들은 길을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광야와 산처럼 안전하지 않은 곳도 많았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그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4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더위와 추위로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렸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으로 올라가며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느꼈어요.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든지 우리를 돌보시며 지켜주고 계세요. 성실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싶지 않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찬양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닮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보아요.

토론하기

Q1 우리 가정이 성실하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Pray 성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GOD'S TIME 1 첫째주

날짜: 2020. . .

부모님 확인: . . .

with
말씀

레위기 4:1-5:19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13. 이스라엘 온 회중이, 실수로, 함께 책임을 져야 할 잘못을 저지르면, 그것은 비록 깨닫지 못하였을지라도 죄가 된다. 나 주가 하지 말라고 명한 모든 것을 하나라도 어겨서 벌을 받게 되면,
14. 그들이 지은 죄를 그들 스스로가 깨닫는 대로, 곧바로 총회는 소 떼 가운데서 수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 오면,
15. 회중을 대표하는 장로들은, 주 앞에서 그 수송아지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주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아야 한다.
16. 그리고 기름부음을 받고 임명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얼마 받아서, 회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17. 제사장이 직접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주 앞 곧 휘장 앞에서 일곱 번 뿌려야 한다.
18. 그는 또 회막 안, 주 앞에 있는 제단 뿔에 그 피를 조금씩 바르고, 나머지 피는 모두 회막 어귀에 있는 번제단 밑바닥에 쏟아야 한다.
19. 그런 다음에, 그는 그 수송아지에게서 기름기를 모두 떼어 내게 하여, 그것을 받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야 한다.
20. 그는 이렇게 수송아지를 다루면 된다. 이 수송아지도 속죄제물로 바친 수송아지를 다루듯이 다루면 된다. 제사장이 이렇게 회중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들은 용서를 받는다.
21.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를 진 바깥으로 옮겨, 앞에서 말한 수송아지를 불사를 때와 같이, 그렇게 그것을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바로 회중의 죄를 속하는 속죄제사이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속죄제물: 속죄제사
(사람이 지은 죄를 용서
받는 제사)에 드려지는
희생제물

with
관찰

1. 온 회중이 책임져야 하는 잘못을 했을 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무엇으로 바쳐야 하나요? (13-14절)

속

2. 속죄제사를 무엇을 속하는 제사 인가요? (21절)

“...이것이 바로 회중의 를 속하는 속죄제사이다.”

with
생각

레위기 4장은 구약의 여러 가지 제사 중 ‘속죄제’에 대한 말씀이에요. 속죄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에 대한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린 제사예요. 특별히 온 이스라엘 회중이 범죄 하여 드리는 속죄제는 수송아지로 드렸는데, 장로들이 수송아지에게 안수하면 백성들의 죄가 수송아지에게 전가되고, 그 수송아지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 백성들의 죄는 용서받게 되었지요.

with
결심

구약시대에 속죄제는 죄를 범했을 때, 의무적으로 꼭 드려야하는 제사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속죄제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셨지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 덕분에 구약시대처럼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용서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해요.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심 어린 회개의 모습을 보시고, 용서하실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모른 척 하고 넘어가지 않고, 그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로 약속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실수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2 첫째주

날짜 : 2020.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레위기 6:1-7:38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 "누구든지 나 주에게 성실하지 못하여 죄를 지으면,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담보물을 속이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이웃의 것을 강제로 빼앗거나,
3.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줍고도 감추거나, 거짓 증언을 하거나, 사람이 하면 죄가 되는 일들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하면,
4. 그래서 그가 그런 죄를 짓고 유죄판결을 받으면, 그는, 자기가 강도질을 하여 훔친 물건이든, 강제로 빼앗아서 가진 물건이든, 맡고 있는 물건이든,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든,
5. 거짓으로 증언하면서까지 자기의 것이라고 우긴 물건이든, 모두 물어 내야 한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모자람이 없이 다 갚아야 할 뿐 아니라, 물어 내는 물건값의 오분의 일에 해당하는 값을 보태어 본래의 임자에게 갚되, 속건제물을 바치는 날로 갚아야 한다.
6. 그는 주에게 바치는 속건제물을 제사장에게 가져 가야 한다. 그것은 양 떼 가운데서 고른 흠 없는 숫양 한 마리로서, 그 속건제물의 값은 네가 정하여 주어야 한다.
7. 제사장이 주 앞에서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사람이 하면 죄가 되는 일들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하여 지은 그 죄를, 용서 받게 된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증언 : 증인으로 사실을 증명함

유죄판결 : 죄가 있다는 판단 결과

with
관찰

1. 남의 물건을 부당하게 빼앗은 경우, 빼앗은 물건에 얼마만큼을 더하여 배상해야 하나요? (5절)
“... 그는 이 모든 것을 모자람이 없이 다 갚아야 할 뿐 아니라,
물어 내는 물건값의 분의 에 해당하는 값을 어 본래의 입자에게 갚되, 속건제물을 바치는 날로 갚아야 한다.”

2. 속건제물을 누구에게 가져가서 속건제를 드리도록 해야 하나요? (6절)

with
생각

속건제는 성물에 대한 피해, 그리고 이웃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제사라고 할 수 있어요. 이웃을 속이거나, 도둑질 하거나, 빼앗거나, 거짓말을 했을 때, 그러한 죄를 저지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 한 것이기에 하나님께 속건제물을 드려야 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웃의 물건을 빼앗은 경우, 빼앗은 물건의 1/5을 더해서 배상해야 하는 규례도 있었지요.

with
결심

모든 범죄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해요. 만약 우리가 이웃에게 잘못했을 경우에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할 뿐 아니라, 이웃에게 끼친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이웃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뿐 아니라, 이웃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화목한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기로 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과 화목할 뿐 아니라, 이웃과도 화목한 제가 되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3 첫째주

날짜 : 2020.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레위기 8:1-8:36 “제사장 위임식”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 또 모세는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과 제단에 있는 피를 가져다가, 아론 곧 제사장 예복을 입은 아론에게 뿌렸다. 그는 또 아론의 아들들 곧 제사장 예복을 입은 그의 아들들에게도 뿌렸다. 이렇게 하여 모세는, 아론과 그의 옷 및 그의 아들들과 그들의 옷을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 모세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일렀다. "회막 어귀에서 고기를 삶아서, 위임식 제물로 바친 바구니에 담긴 빵과 함께 거기에서 먹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그것을 먹어야 한다고 나에게 명하셨습니다.
- 먹다가 남은 고기와 빵은 불에 태워야 합니다.
- 위임식 절차가 끝나는 날까지 이레 동안은 회막 어귀 바깥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대들의 제사장 위임식은 이레가 걸리기 때문입니다.
- 주님께서는 그대들의 죄를 속하는 예식을, 오늘 한 것처럼 이렇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 그대들은 밤낮 이레를 회막 어귀에 머물러 있으면서, 주님께서 시키신 것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다가는 죽을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받은 명입니다."
-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명하신 것을 모두 그대로 하였다.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어귀: 드나드는 곳 첫 머리 (맨 앞)



with
관찰

1.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그들의 옷을 거룩하게 구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30절)

“또 모세는 거룩하게 구별하는 과 제단에 있는 를 가져다가, 아론 곧 제사장 예복을 입은 아론에게 뿌렸다. 그는 또 아론의 아들들 곧 제사장 예복을 입은 그의 아들들에게도 뿌렸다. 이렇게 하여 모세는, 아론과 그의 옷 및 그의 아들들과 그들의 옷을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2.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① 모세는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과 제단에 있는 피를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뿌림
- ② 고기와 빵을 먹고, 남은 것은 가져갈 수 있게 함
- ③ 위임식 절차는 이레 동안 이뤄짐
- ④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명하신 것을 모두 그대로 함

with
생각

레위기 8장은 제사장을 세우는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말씀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자 중재자 역할을 해요. 특별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순종하게 하고, 백성들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도록 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렇기에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 제사장 직분을 주었지요. 마지막 단계에는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거룩한 기름과 번제단의 피를 뿌려 그들을 거룩하게 했지요. 위임식은 이레(7일) 동안 진행되었고, 제사장이 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모두 그대로 행했어요.

with
결심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위임식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제사장이 되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위임 받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며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모두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 주셨기 때문이에요.(벧전2:9)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며, 늘 기도하고 간구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결심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주세요.
나의 기도:

GOD'S TIME 4 첫째주

날짜 : 2020.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레위기 9:1-24 “부족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여드레째 되는 날에,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불렀다.
2.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속죄제물로 바칠 송아지 한 마리와 번제물로 바칠 숫양 한 마리를, 흠 없는 것으로 주님 앞으로 가져 오십시오.
3.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속죄제물로 바칠 숫염소와 번제물로 바칠 일 년 된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각각 흠이 없는 것으로 한 마리씩 가져 오게 하고,
4. 또 화목제물로 바칠 수소와 숫양을 주님 앞으로 끌어 오게 하고, 기름에 반죽하여 만든 곡식제물을 가져 오게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나타나실 것이라고 이르십시오."
5.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가 가져 오라고 명령한 것들을 회막 앞으로 가져 왔다. 온 회중이 주님 앞에 가까이 와서 서니,
6.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당신들더러 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당신들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7. 그런 다음에, 모세는 아론에게 일렀다. "형님은 제단으로 가까이 가서서, 형님과 백성의 죄를 속하도록, 속죄제물과 번제물을 바치 시기 바랍니다. 백성이 드리는 제물을 바쳐서, 그들의 죄도 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with
관찰

1. 모세는 아론의 첫 제사를 위해 무엇을 가져 오라고 했나요? (2절)

“... 속죄제물로 바칠 한 마리와 번제물로 바칠 숫양
한 마리를, 것으로 주님 앞으로 가져 오십시오.”

2. 모세는 아론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제물들을 가져오게 하라 명한 후,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 전하라고 했나요? (4절)

“또 화목제물로 바칠 수소와 숫양을 주님 앞으로 끌어 오게 하고, 기름에
반죽하여 만든 곡식제물을 가져 오게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것이라고 이르십시오.”

with
생각

8일 째 되는 날, 아론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첫 제사를 드렸어요. 모세는 아론과
그 아들들, 그리고 장로들에게 제사 지침을 전했어요. 아론은 자신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 했고, 이스라엘 자손은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소제를 드려야 했어요.
그리고 모세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라고 말했어요.

with
결심

아론은 금송아지 사건(출32)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용서
하셨어요. 나아가 아론을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중재하는 대제사장으로
세우셔서 존귀한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죄인일지
라도,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사용하세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이 되기를 기대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부족한 죄인인 저를 하나님의 일에 사용해주세요.
나의 기도 :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 사도행전 20장 24절 -





10월 둘째주
2020년 10월 11일~17일



Memory Time



예수님의 성실

둘째주

♥ 주제 : 성실

♥ 암송구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 누가복음 4장 43절

♥ 오늘의 주제 : 예수님의 성실 ▷ 누가복음 4:42-44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성실하게 전해요.

★ 말씀 나눔 (이 질문으로 친구들과 토의해 보세요)

- ① 우리들이 떠나지 않기를 바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길을 떠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43절)
- ② 갈릴리에 가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나요? (44절)
- ③ 우리들이 예수님께 자신들을 떠나지 말아달라고 부탁한 이유는 무엇인지 자유롭게 생각해보세요.

★ 교육 활동 “하고 싶은 일 vs 해야 하는 일”

준비물 : 활동지(부록), 필기도구, 가위

- ① 부록에 있는 카드를 가위로 오려주세요.
- ② “내가 하고 싶은 일”의 목록을 읽고, 가장 하고 싶은 일 세 가지를 골라서 적어보세요.
- ③ “내가 해야 하는 일”의 목록을 읽고, 가장 하고 싶은 일 세 가지를 골라서 적어보세요.
- ④ 자신이 고른 Best 3 와 그 이유를 가족 또는 친구들과 나눠보세요.
- ⑤ 자신이 고른 “내가 해야 하는 일”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서 실천하기로 다짐해요.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둘째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성실하게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기꺼이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 몸이 아픈 환자들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오랫동안 함께하기를 요청했어요. 그 요청은 힘들고 피곤하셨을 예수님에게 정말 달콤한 제안이었을 거예요. 마을에서 조금 더 계시면서 편안하게 쉬고, 배고픔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눅 4:43)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으셨어요. 피곤한 몸을 이기고, 귀찮은 마음을 뒤로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셨어요. 예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 여러 마을을 찾아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성실하신 예수님은 자신의 편안함보다 해야 하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하는 일이었어요.

우리도 이렇게 성실한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기로 해요. 우리 친구들이 해야 하는 일들은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보고,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는 ‘내가 해야 하는 일’을 실천하는 성실한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토론하기

Q1.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성실하게 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지 함께 나누어 보세요.

Pray 예수님처럼 성실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GOD'S TIME 1 둘째주

날짜 : 2020.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레위기 10:1-20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아론의 아들 가운데서, 나답과 아비후가 제각기 자기의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불을 담고 향을 피워서 주님께로 가져 갔다. 그러나 그 불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것과는 다른 금지된 불이다.
2. 주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키니, 그들은 주님 앞에서 죽고 말았다.
3.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게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나의 거룩함을 보이겠고, 모든 백성에게 나의 위엄을 나타내리라' 하신 말씀은, 바로 이것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아론은 아무 말도 못하였다.
4. 모세는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렀다. 그들은 아론의 삼촌 웃시엘의 아들들이다. 모세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카들의 시체를 성소에서 진 바깥으로 옮기라고 하였다.
5. 그들은 모세가 시킨 대로 가까이 가서, 조카들의 옷을 잡아 끌어 진 바깥으로 옮겼다.
6.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어 애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당신들마저 죽을 것입니다. 주님의 진노가 모든 회중에게까지 미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다만 당신들의 동족 곧 온 이스라엘 집안만이, 주님의 진노로 타 죽은 이들을 생각하며 애도할 것입니다.
7. 당신들은 회막 어귀 바깥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여기면, 당신들도 죽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주님께서 기름부어 거룩하게 구별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세가 시킨 대로 하였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애도 : 사람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

with
관찰

1. 나답과 아비후가 주님께로 가져간 불은 어떤 불이었나요? (1절)

“... 불...”

2. 나답과 아비후는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2절)

“... 말았다...”

with
생각

아론의 아들들이며 모세의 조카였던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과 다른, 금지된 불을 하나님께 가져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것이에요. 그 결과로 그들은 죽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일을 자기들 마음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불순종한 것의 결과는 참담했어요.

with
결심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야 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았고,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매 순간 하나님을 무서워할 이유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보며 속상해 하세요. 늘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로 다짐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것을 지키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2

둘째주

날짜 : 2020.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레위기 11:1-12:8 “구별된 그리스도인”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2.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땅에서 사는 모든 짐승 가운데서, 너희가 먹을 수 있는 동물은 다음과 같다.
3. 짐승 가운데서 굽이 갈라진 쪽발이면서 새김질도 하는 짐승은, 모두 너희가 먹을 수 있다.
4.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두 쪽으로 갈라졌더라도, 다음과 같은 것은 너희가 먹지 못한다. 낙타는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너희에게는 부정한 것이다.
5. 오소리도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너희에게는 부정한 것이다.
6. 토끼도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너희에게는 부정한 것이다.
7. 돼지는 굽이 두 쪽으로 갈라진 쪽발이기는 하지만, 새김질을 하지 않으므로 너희에게는 부정한 것이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새김질 : 한번 삼킨 먹이를 다시 게워 내어 씹는 것

부정하다 : 깨끗하지 못하다



with
관찰

1.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어도 된다고 하신 동물은 무엇인가요? (3절)

“... 굽이 갈라진 쪽발이면서 도 하는 짐승 ...”

2. 다음 중 정결한 동물은 무엇인가요? (2-7절)

- ① 돼지 ② 토끼 ③ 오소리 ④ 소

with
생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 바르게 살도록 하기 위해 여러 가지 법을 주셨어요. 특별히 먹는 것에 대한 법도 주셨어요. 굽이 두 개로 갈라졌으며 새김질을 하는 동물들은 먹어도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새김질만 하고 굽은 갈라져 있지 않거나, 굽은 갈라져 있지만 새김질을 하지 않는 동물들은 먹지 못하게 하셨어요. 이러한 법 안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어요.

with
결심

굽이 두 개로 갈라진 동물은, 세상과 구별된 기독교인들을 상징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굽이 두 쪽으로 갈라진 동물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새김질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는 것을 상징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 안에 이러한 깊은 뜻을 숨겨두셨어요. 우리도 이 말씀을 읽으며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살아가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과 구별된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3 둘째주

날짜 : 2020. . .

부모님 확인 : . . .



with
말씀

레위기 13:1-14:57 “마음을 점검해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2. "누구든지 살갓에 부스럼이나 뾰루지나 얼룩이 생겨서, 그 살갓이 악성 피부병에 감염된 것 같거든, 사람들은 그를 제사장 아론에게 나 그의 아들 가운데 어느 제사장에게 데려가야 한다.
3. 그러면 제사장은 그의 살갓에 감염된 병을 살펴봐야 한다. 감염된 그 자리에서 난 털이 하얗게 되고 그 감염된 자리가 살갓 보다 우묵하게 들어갔으면, 그것은 악성 피부병에 감염된 것이니, 제사장은 다 살펴본 뒤에, 그 환자에게 '부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4. 그러나 그의 살갓에 생긴 얼룩이 희기만 하고, 살갓보다 우묵하게 들어가지도 않고, 그 곳의 털이 하얗게 되지도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격리시키기만 한다.
5. 이레가 되는 날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살펴보고, 자기가 보기에 환부가 변하지 않고, 그 병이 그의 살갓에 더 퍼지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를 다시 이레 동안 더 격리시킨다.
6. 이레째 되는 날에 제사장은 그를 다시 살펴보고, 그 병이 사라지고 그의 살갓에 더 퍼지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에게 '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것은 단순한 뾰루지일 뿐이므로, 옷을 빨아 입으면, 그는 깨끗하여질 것이다.
7. 그러나 제사장에게 보여서 제사장으로부터 '정하다'는 선언을 받은 뒤에라도, 그 뾰루지가 살갓에 퍼지면, 그는 다시 제사장에게 그것을 보여야 한다.
8. 제사장은 그것을 살펴보고, 그 뾰루지가 살갓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에게 '부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것은 악성 피부병이다.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부스럼 : 피부에 나는

종기

이레 : 칠일



with
관찰

1. 하나님께서는 살갓에 뽀루지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나요? (2절)

에게 가야 한다.

2. 다음 중 살갓에 생긴 병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① 감염된 자리에 난 털이 하얗고, 살갓보다 우묵하면 악성 피부병이다.
- ② 얼룩이 희고, 우묵하지 않고 그곳의 털이 하얗지 않으면 5일 동안 격리해야 한다.
- ③ 정하다는 선언을 받더라도, 뽀루지가 다시 퍼지면 다시 제사장에게 찾아가야 한다.
- ④ 뽀루지가 퍼졌으면 악성 피부병이다.

with
생각

레위기 13,14장은 문둥병 관련 규례에 대한 내용이에요. 몸에 나타나는 각종 증상과 또 문둥병을 진단하는 방법을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피부병을 진단하여 병에 걸린 사람들을 비난하고자 하지 않으셨어요. 레위기 말씀에서 문둥병은 죄악을 상징해요. 문둥병에 걸린 것이 아닐까, 세심하게 살펴보고 진단하는 것처럼 늘 죄 짓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with
결심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둥병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제사장을 찾아갔어요. 우리 또한 우리의 마음에 나쁜 생각이 찾아오면, 그것을 진단해 보아야 해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교회에 가기 싫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은 마음 등 여러 종류의 나쁜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러한 마음이 생기면,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또는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도움을 받아야 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마음속에 찾아오는 죄, 나쁜 생각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4 둘째주

날짜: 2020.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레위기 15:1-16:34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30.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31.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의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32.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33.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34.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일 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정결하다: 매우 깨끗하고

깔끔하다

with
관찰

1.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나요? (30절)

되기를 원하심.

2.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 속죄하라고 말씀하셨나요? (34절)

with
생각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정결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여러 가지 죄악을 짓고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속죄할 것을 명령 하시면서 백성들이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with
결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도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마음과 동일해요. 우리는 계속해서 나쁜 생각을 하고 죄를 짓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다만 늘 죄악으로부터 깨끗해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나의 죄악을 매일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회개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매일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나의 기도 :

ENGLISH BIBLE STUDY



다니엘 1장 11-15절 (새번역성경) / Daniel 1:11-15 (NIRV)

Integrity—Choosing to be truthful in whatever you say and do.

진실성 - 진실하게 말하고 행동하기를 선택하는 것.

11. 다니엘은 감독관에게로 갔다. 그 감독관은 환관장이 임명한 사람으로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는 일을 맡은 사람이다. 다니엘이 그 감독관에게 요청하였다.
12. "부디 이 종들을 열흘 동안만 시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채소를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13. 그런 다음에, 우리의 얼굴빛과 왕이 내린 음식을 먹는 젊은이들의 얼굴빛을 비교하여 보시고, 이 종들의 요청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그래서 감독관은 그 말을 따라서, 열흘 동안 시험해 보았다.
15. 열흘이 지났을 때에 보니, 그들의 얼굴빛이 왕이 내린 음식을 먹은 젊은이들의 얼굴빛 보다 좋고 건강하여 보였다.

Daniel 1:11-15 (NIRV)

11. So Daniel spoke to one of the guards. The chief official had appointed him over Daniel, Hananiah, Mishael and Azariah.
12. Daniel said to him, "Please test us for ten days. Give us nothing but vegetables to eat. And give us only water to drink.
13. Then compare us with the young men who eat the king's food. See how we look. After that, do what you want to."
14. So the guard agreed. He tested them for ten days.
15. After the ten days Daniel and his friends looked **healthy** and well fed. **In fact**, they **looked better** than any of the young men who ate the king's food.

Vocabulary

Healthy- 건강한

In fact- 게다가

Look better- 더 낮게

Observation

Write the missing letters.

15. After the ten days Daniel and his friends looked h_____ and well fed. I_ f_ ___, they l_ _____ b_ _____ than any of the young men who ate the king's food.

Interpretation

바벨론의 왕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침략했어요. 그리고 그 곳에 있던 아름다운 청년들 중 여럿을 바벨론으로 붙잡아갔어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또한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그들은 그 곳에서 특별 관리를 받았어요. 그들에게는 왕의 특별한 음식과 포도주가 제공되었어요. 그러나 다니엘과 친구들은 이러한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음식을 먹으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관리에게 채소만 달라고 요구했어요. 관리는 그들이 다른 소년들에 비해 굶주린 것처럼 보일까봐 두려웠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었어요. 그리고 관리에게 자신 있게 열흘 동안 채소만 주고 시험해 보라고 말했어요. 관리는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었어요. 그는 열흘 후에 매우 놀랐어요. 다니엘과 친구들의 얼굴이 좋은 음식을 먹었던 소년들의 얼굴보다 더욱 좋아보였기 때문이에요.

ENGLISH BIBLE STUDY



Application

Being God's person means that we have to maintain integrity. We have to fight to keep our words and act as God wants us to. That means that we can encounter difficulties sometimes. Daniel and his friends had to go through difficult situations. They had to eat only vegetables in order to avoid wrong food. But God saw how they struggled to maintain their integrity. And he made their faces look good. Amazing things happen when we struggle to keep our integrity. Sometimes lying, and living the wrong way seems easy. But when we choose God's way, He will show us that He is alive.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실해야 해요. 우리는 우리가 고백한 말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해요.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기도 해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또한 힘든 상황을 만났어요. 그들은 잘못된 음식을 피하기 위해 채소만 먹어야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진실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얼굴이 좋아보이도록 도와주셨어요. 진실성을 지키며 살아갈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거짓말하고, 잘못된 삶을 사는 것이 더 쉬워 보일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이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실 것이예요.

Let's memorize

Let's memorize Daniel 1:15 NIRV

다니엘서 1장 15절을 외워보도록 해요.

“After the ten days Daniel and his friends looked healthy and well fed. In fact, they looked better than any of the young men who ate the king's food.”

- Daniel 1:15, NIRV -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 사도행전 20장 24절 -





10월 셋째주
2020년 10월 18일~24일





♥ 주제 : 성실

♥ 암송구절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열왕기하 23장 25절

♥ 오늘의 주제 요시아의 성실 ▷열왕기하 23:21-25
하나님 말씀을 성실하게 실천해요.

- 1 요시아 왕이 백성들에게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무엇을 지키라고 하였나요? (21절)
- 2 사사시대부터 요시아 왕 이전까지 언제 유월절을 지켰나요? (22절)
- 3 요시아 왕은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제거하였나요? (24절)
- 4 요시아 왕이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24절)
- 5 요시아 왕은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말씀을 성실하게 실천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말씀을 성실하게 지키고 있나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성실한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보아요.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요시아왕은 유다를 다스린 지 열여덟째 해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기로 했어요.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대제사장 힐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힐기야는 서기관 사반에게 그 율법책을 주었고, 사반은 요시아 왕에게 돌아가 이 사실을 전하며 왕 앞에서 율법책을 읽었어요. 그 내용을 들은 요시아는 자신의 옷을 찢으며 말씀에 기록된 대로 행하지 않았음을 회개하며, 모든 백성이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따를 것을 선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잊고 지내왔어요. 하지만 요시아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뉘우치고,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했어요. 요시아 왕은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불사르고, 우상을 섬긴 제사장들을 내쫓도록 하였어요. 그리고 요시아 왕은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위해 유월절을 지킬 것을 명령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실하게 실천한 왕은 요시아뿐이에요.(25절)

친구들!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성실하게 실천하고 있나요? 요시아 왕은 마음과 뜻을 다해,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행하였어요. 이처럼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실천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토론하기

Q1. 우리 가정이 성실하게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 있을까요?

Pray 하나님 말씀을 성실하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GOD'S TIME 1 셋째주

날짜 : 2020.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레위기 17:1-18:30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1.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3. 너희는 너희가 살던 이집트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이제 내가 이끌고 갈 땅, 가나안의 풍속도 따르지 말아라. 너희는 그들의 규례를 따라 살지 말아라.
4. 그리고 너희는 내가 명한 법도를 따르고, 내가 세운 규례를 따라 살아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5.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세운 규례와 내가 명한 법도를 지켜라. 어떤 사람이든 이것을 지키기만 하면, 그것으로 그 사람이 살 수 있다. 나는 주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풍속 : 옛날부터 그 사회에 전해 오는 생활 전반에 걸친 습관 따위를 이르는 말

with
관찰

1.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어느곳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하셨나요? (2-3절)

이 , 가

2. 하나님은 누구의 법도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나요? (4절)

“...너희는 가 명한 법도를 따르고, 가 세운 를 따라 살아라...”

with
생각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집트나 가나안과 같은 이방인들의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써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기만 하면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법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with
결심

하나님의 법도대로.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다른 사람들보다 정직해야 하고, 때로는 손해를 봐야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주 하나님이 되시고, 항상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약속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소 힘들고 손해 보는 일이 있더라도 믿고 따르며 살아가기로 다짐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2 셋째주

날짜 : 2020.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레위기 19:1-37 “외국사람을 대할 때”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33. 외국 사람이 나그네가 되어 너희의 땅에서 너희와 함께 살 때에, 너희는 그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34. 너희와 함께 사는 그 외국인 나그네를 너희의 **본토인**처럼 여기고, 그를 너희의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 살 때에는, 외국인 나그네 신세였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억압: 자기의 뜻대로 자유로이 행동하지 못하도록 억지로 억누름

본토인: 대대로 그 고장에 서 불박이로 사는 사람



with
관찰

1. 하나님께서는 외국사람에게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셨나요? (33절)

“...너희는 그를 해서는 안 된다”

2. 하나님께서는 외국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나요? (34절)

“너희와 함께 사는 그 외국인 나그네를 너희의 처럼
여기고, 그를 너희의 몸과 같이 하여라...”

with
생각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 할 법도들을 말씀하시면서 외국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외국인이라 차별하지 말고 나와 함께 살아온 본토인처럼 대하라고 말씀하셨지요. 또한 그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집트에서 노예생활을 할 때에는 외국인 나그네 신세였기 때문이에요.

with
결심

하나님께서서는 외국인들도 겉모습으로 차별하지 말고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먼 훗날 예수님께서 오셔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지요. 또한 많은 당시의 이방인들을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외국인들을 차별하지 말고 내 몸처럼 사랑하기로 다짐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이웃들과 외국 사람들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3 셋째주

날짜 : 2020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레위기 20:1-21:24 “거룩해야 하는 이유”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7. 그러므로 너희는 몸가짐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8. 내가 정한 규례를 지켜 그대로 하여야 한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한 주다.

(생략)

26.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나에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는 너희를 못 백성 가운데서 골라서, 나의 백성이 되게 하였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with
관찰

1.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지키라 하셨나요? (8절)

규

2.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나요?(26절)

“나 가 하니, 너희도 나에게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with
생각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수많은 규례들을 알려 주셨어요. 자유롭게 이방인들 사이에서 살아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많은 규례를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았고 불편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법도와 규례들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룩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with
결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하기를 요구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도 거룩하기를 바라고 계세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으로서 몸가짐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거룩하게 살아가기로 다짐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4 셋째주

날짜: 2020.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레위기 22:1-33 “드리는 마음”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17.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18.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사는 외국인 나그네가, 제물을 바치 고자 할 때에는, 그것이, 서약한 것을 갚으려고 해서 바치는 것이거나, 자유로운 뜻에서 나 주에게 번제물로 바치려는 것 이거나, 모두,
 19. 나 주가 즐거이 받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수컷 으로, 흠이 없는 것을 바쳐야 한다.
 20. 너희는 어떤 것이든지, 흠이 있는 것을 바쳐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을 바치면, 나 주가 너희를 반기지 않을 것이다.
-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with
관찰

1. 하나님은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떤 것을 드리라 하셨나요? (19절)

“나 주가 받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수컷으로,
 이 없는 것을 바쳐야 한다.”

2. 흠이 있는 것을 바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20절)

“나 주가 너희를 앎을 것이다”

with
생각

하나님께서서는 제사장인 아론과 모세 뿐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물에 대한 규례를 말씀해주셨어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이 같은 규례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써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예물 자체가 아니에요. 바로 예물을 준비하고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with
결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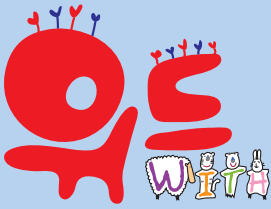
하나님께서서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이나 헌물을 드릴 때에는 그 금액이나 가치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로 준비하고 기쁨으로 드리는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신답니다. 헌금을 드릴 때, 지금 막 주머니에 있는 돈을 급하게 꺼내어 드리는 행동은 준비되어 있지 않은 모습이에요. 우리는 금액과 관계 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예물을 올려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 사도행전 20장 24절 -





10월 넷째주
2020년 10월 25일~10월 31일



Memory Time



우리에게 맡기신 일

넷째주

♥ 주제 : 성실

♥ **암송구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 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 **오늘의 주제** 우리에게 맡기신 일 ▷사도행전 20:17-24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요.

★ **말씀 나눔** (이 질문으로 친구들과 토의해 보세요.)

- ① 바울이 밀레도에서 교회 장로들을 청한 곳은 어디인가요? (17절)
- ② 바울은 자신이 누구에게 매인 사람이라고 했나요? (22절)
- ③ 바울이 예수님께 받은 사명은 무엇인가요? (24절)

★ **교육활동 - “사도바울 부채 만들기”**

준비물 - 활동지, 두꺼운 도화지, 색연필, 나무젓가락, 가위, 스키테이프, 풀

- ① 활동지에 있는 사울과 바울 얼굴을 색칠해주세요.
- ② 사울과 바울 얼굴을 도화지 위에 붙여주세요.
- ③ 사울과 바울의 얼굴을 가위로 오려주세요.
- ④ 나무젓가락을 가운데 두고 사울과 바울의 얼굴을 붙여주세요.
- ⑤ 부채 완성! 만들어진 부채를 시원하게 부쳐 보세요.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사람은 누구나 한 가지 이상의 역할을 갖고 있어요. 집에서는 자녀, 또는 형제, 학교에서는 학생, 놀이터에서는 누군가의 친구가 되기도 하지요. 또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아주 중요한 역할도 갖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자신에게 맡겨진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성실하게 잘 감당했던 바울이 등장해요. 바울은 이곳저곳을 다니며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한 바울을 괴롭히고, 핍박하며 힘들게 했지요. 하지만 죽음 앞에서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성실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지요.(24절) 결국, 그런 바울을 통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친구들!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때로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던 바울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 나가는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토론하기

Q1.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맡기신 일은 무엇일까요?

Pray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우리 가정이 되게해주세요.

GOD'S TIME 1

넷째주

날짜: 2020.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레위기 23:1-44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15. "너희가 안식일 다음날 곧 곡식단을 흔들어서 바친 그 날로부터 일곱 주간을 꼭 차게 세고,
16. 거기에서 일곱 번째 안식일 다음날까지 더하면 꼭 오십일이 될 것이다. 그 때에 너희는 **햇곡식**을 주에게 곡식제물로 바쳐야 한다.
17. 너희는 너희가 살고 있는 곳에서, 주에게 **만물**로 흔들여 바칠 햇곡식으로 만든 빵 두 개를 가져 와야 한다. 그 빵은 밀가루 십분의 이 에바를 가지고 만들어야 하고,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 반죽하여 구운 것이어야 한다.
18. 이 빵과 함께, 너희는, 일 년 된 흠 없는 어린 양 일곱 마리와, 소 떼 가운데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두 마리를 끌어다가, 주에게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 때에 곡식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도 함께 바쳐야 한다. 이것이, 제물을 태워서 그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19. 너희는 또 숫염소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치고, 일 년 된 어린 숫양 두 마리는 화목제물로 바쳐야 한다.
20. 제사장은 그것들을 받아 첫 이삭으로 만들어 바치는 빵과 함께, 주 앞에서 그것들을 흔들어서, 두 마리 양과 함께 바쳐야 한다. 이것들은 주에게 바친 거룩한 제물로서 제사장의 몫이다.
21. 바로 그 날에 너희는 모임을 열어야 한다. 그 모임은 너희에게 거룩한 것이므로, 그 날은 생업을 돕는 어떤 일도 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은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대대로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햇곡식: 올해에 새로 난 곡식

만물: 그해의 맨 처음에 나는 것



with
관찰

1.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하나요? (18절)

ㅎ ㄱ

2.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모임을 열 때 자신들의 생업을 위한 어떤 일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21절)

- ① 모임에 참여하면 돈을 주기 때문에
- ② 모임은 백성들에게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 ③ 하나님이 대신 일해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 ④ 천사들이 대신 일해 준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with
생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많은 절기를 알려주셨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절기는 '칠칠절' 이라고 불리는 절기예요. 이 날은 '맥추절' 혹은 '오순절' 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칠칠절은 한 해 동안 기른 첫 곡물을 하나님께 바치며 풍성한 곡식의 수확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이에요. 자신들이 기른 곡식으로 만든 음식을 먹으며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였어요.

with
결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통해 자신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기억하며 감사드리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더욱 크신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with
기도

할 줄 기도: 모든 것 주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GOD'S TIME 2

넷째주

날짜 : 2020.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레위기 24:1-25:55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겨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10.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버지는 이집트 사람이다. 이스라엘 여자에게서 난 그 아들이, 한번은 집에서 어떤 이스라엘 남자와 싸웠다.
11. 이스라엘 여자에게서 난 아들이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면서 저주하는 말을 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끌고 모세에게로 왔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슬로밋인데, 단 지파에 속하는 디브리라는 사람의 딸이다.
12. 사람들은 그를 가두어 놓고, 주님의 뜻이 그들에게 밝혀질 때까지 기다렸다.
13.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14. "나 주를 저주하는 말을 한 그를 너는 진 바깥으로 끌어내라. 나에게 저주하는 말을 들은 사람들이 모두 그자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온 회중은 그를 돌로 쳐라.
15.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벌을 면하지 못한다고 일러라.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모독: 말이나 행동으로 더럽혀 욕되게 함

with
관찰

1. 이스라엘 여자에게서 난 아들이 주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였나요? (11절)

“이스라엘 여자에게서 난 아들이 주님의 이름을 하면서
 하는 말을 하였다...”

2.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나요? (15절)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을 면하지 고 일러라.”

with
생각

이스라엘 여자에게서 난 한 남자가 이스라엘 사람과 다툼이 생겼어요. 그는 싸우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했어요. 이 상황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남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고, 하나님께서는 남자에게 벌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자들에게는 모두 벌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with
결심

십계명의 제3계명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예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귀하게 여겨야 해요. 귀하고 거룩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언제 어디서나 찬양하며 전파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나의 주님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요.

나의 기도 :

GOD'S TIME 3

넷째주

날짜 : 2020.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레위기 26:1-46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40. 그러나 그들이, 자기들이 지은 죄와 조상들이 지은 죄, 곧 그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반항한 허물을 고백하면, 또 그들이 나를 거슬렀으므로,
41. 내가 그들을 거스르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과, 그래서 내가 그들을 원수가 사는 땅으로 보냈다는 것을 깨닫고, 할례 받지 못한 그들의 마음이 겸손해져서, 자기들이 지은 죄로 벌을 기꺼이 받으면,
42. 나는, 야곱과 맺은 언약과 이삭과 맺은 언약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또 그 땅도 기억하겠다.
43. 그들에게 버림받은 그 땅은, 오히려 그들이 없는 동안 폐허로 있으면서, 안식을 누릴 것이다. 그 기간에 그들은 내가 명한 **법도**를 거역한 죄값과 내가 세운 규례를 지키지 않은 죄값을 치를 것이다.
44. 비록 그들이 죄값을 치르고 있더라도, 그들이 원수의 땅에 잡혀가 있는 동안에, 나는 절대로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 미워하지도 않고 멸망시키지도 않겠다. 그래서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을 깨뜨리지 않겠다. 내가 주 그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45. 그들을 돌보려고, 나는,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낸 그 첫 세대와 맺은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못 민족 이보는 앞에서 그들을 이끌어 내었다. 나는 주다."
46. 이상은 주님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를 시켜, 주님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세우신 여러 가지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다.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법도: 생활에 필요한 예절과 규칙



with
관찰

1.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신다고 하셨나요? (40-42절)

“그러나 그들이, 자기들이 지은 죄와 조상들이 지은 죄,

곧 그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반항한 을 하면 ...”

2.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미워하지도 멸망시키지도 않으며
그들과 세운 언약을 깨트리지 않겠다고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44절)

“... 내가 그들의 이기 때문이다.”

with
생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를 회개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릴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들이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었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한 줄기 소망이 되었어요.

with
결심

우리도 살아가다보면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죄로 인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친구들과 하신 약속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기쁘게 맞아주실 거예요. 나의 어려운 마음에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나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GOD'S TIME 4

넷째주

날짜: 2020.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레위기 27:1-34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26. "짐승의 만배는 새삼스레 거룩한 것으로 바칠 것이 없다. 만배는 이미 나 주의 것이기 때문이다. 소든지 양이든지 그것들은 다 나 주의 것이다.
27. 그러나 그가 바치려는 것이 부정한 짐승이면, 그는 매겨 있는 값에다 오분의 일을 더 얹어 그것을 무를 수 있다. 그가 그것을 무르지 않으면, 그것은 제사장이 매긴 값으로 팔아야 한다."
28. "사람이 자기에게 있는 것 가운데서, 어떤 것을 주에게 바쳐 그것이 가장 거룩한 것이 되었을 때에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또는 유산으로 물려받은 가문에 속한 밭이든, 그것들을 팔거나 무르거나 할 수 없다. 그것들은 이미 주에게 가장 거룩한 것으로 모두 바친 것이기 때문이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만배: 동물이 낳은 첫 번째 새끼

with
관찰

1. 하나님께서 짐승의 만배는 새삼스레 거룩한 것으로 바칠 것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26절)

“... 만배는 이미 나 의 것이기 때문이다.

소든지 양이든지 그것들은 나 의 것이다.”

2. 사람이 하나님께 바친 제물을 다시 무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8절)

“... 그것들은 이미 주에게 가장 한 것으로

모두 것이기 때문이다.”

with
생각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 중 처음 난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라는 말이에요. 또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바쳤던 제물을 다른 것으로 교환하거나 무를 수 없었어요. 그 이유는 이미
하나님께 드린 제물들은 거룩한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with
결심

하나님이 본문 말씀과 같이 규율을 정하신 이유는 하나님께 드릴 때에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드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이와 같아요. 가볍게
대충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 아닌, 한 번 드릴 때에 정성을 다해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세요. 이것을 기억하며 예배를 소중히 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정성을 다해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Morning Time

가족과 함께하는

1. 잠들어 있는 친구의 팔다리를 가볍게 마사지하며 깨워주세요.
2. 친구가 어느 정도 잠에서 깨고 나면 다음의 말씀을 읽어주세요.
3. 말씀을 다 읽은 뒤, 친구를 포근하게 안아주며 이야기해주세요.



말씀 <마태복음 6:26-33, 새번역>

26.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나?
27.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 순간인들 늘일 수 있느냐?
28.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29.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 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30.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꽃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31.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32.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33.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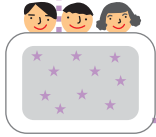
사랑하는 OO아(야), 잘 잤니?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루를 우리에게 주셨단다. 우리 말씀으로 하루를 기쁘게 시작해보자! 오늘 같이 읽은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 들의 백합화, 들꽃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너희 사람들은 입히지 않으시겠냐고 말씀하고 있어. 소중한 우리 OO아(야)! 하나님께서는 OO(이)을/를 너무 사랑하셔서 늘 돌보아주셔서. 가끔 미래에 대한 걱정이 들 때도 있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란다. 그것을 기억하며 다른 것들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OO(이)가 되기를 바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 날을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지난 밤 달콤한 잠자도록 하셔서 우리 OO(이)을/를 지켜주시고, 우리 OO(이)을/를 위해 새 아침을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OO(이)가 오늘 하루,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하루 보내게 해주세요. 오늘도 우리 OO(이)와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족과 함께하는

1. 친구가 잠을 청하기 전에 간단한 스트레칭을 함께 해주세요.
2. 친구에게 오늘 하루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물어봐주세요.
3. 자리에 누워서, 친구에게 말씀을 읽어주세요.
4. 친구를 꼭 안아주며 기도해주세요.



찬양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마커스워십>

전능하신나의주	신실하신나의주	주의말씀	주의말씀
하나님은	하나님은	의지하여	의지하여
능치못하실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깊은 곳에 그물 던져	믿음으로 그물 던져
우리의 모든 간구도	바꿀 수 있네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믿는 자에게
우리의 모든 생각도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이루시는 것보다	능치 못함 없네
우리의 모든 꿈과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모든 소망도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무도 없네

사랑하는 OO(아), 오늘 하루 잘 보냈니?

오늘 들은/읽은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은 못 하실 일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야. 늘 우리 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꿈과 생각,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란다. 오늘도 그냥 시간이 흐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OO(이)를 성실하게 지키시고, 바라보고 계셨단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늘 기도하는 OO(이)가 되면 좋겠어. 우리 함께 기도하자.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 OO(이)을/를 보호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들은/읽은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OO(이)의 생각과 기도를 들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믿음의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이제 우리 OO(이)가 잠자리에 들어요. 평안한 잠자리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내일 기분 좋게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쁜 하루 보내게 해주세요. 못하실 일 없는 주님! 달콤한 잠을 허락해주세요.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FUN FUN PLAY

내가 생각하는 교회

내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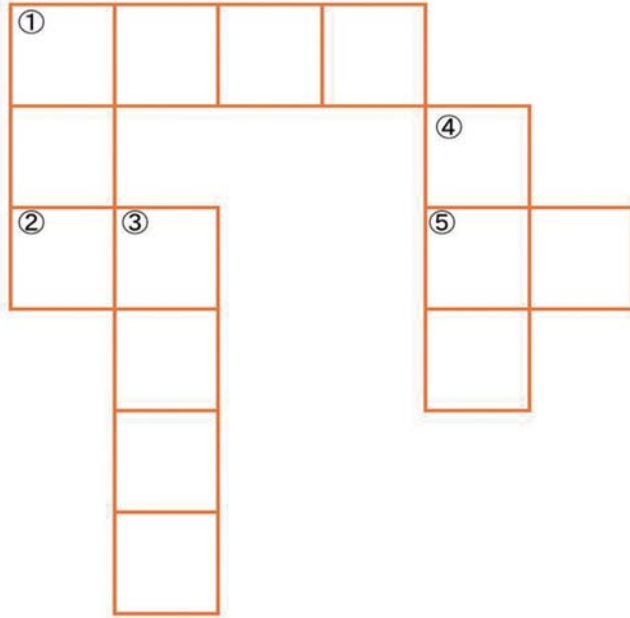
아래 교회 그림을 색칠하고, 내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을 함께 그려보아요!

(ex-교회 마당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이웃을 도와주는 교회)



성경 퍼즐 퀴즈

가로 세로 퀴즈 빈칸에 각각 들어갈 인물을 찾아 퍼즐 퀴즈를 완성해 보아요.



-가로-

- ① ○○○○은 신약성경 가장 첫 번째에 나오는 책이에요.
- ② ○○는 시가서 중 하나로 노래 중의 노래라는 뜻이에요.
- ③ ○○가 지팡이를 들고 팔을 내밀자 홍해가 갈라졌어요. (출 14:21)

-세로-

- ① ○○○는 베들레헴으로 가던 도중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낳았어요. (눅 2:1-7)
- ② ○○○○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으로서,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어요.
(마 26:14-16)
- ③ ○○○는 구약성경의 소신지서 중 하나로, 성경 목록 순서는 요엘 다음이에요.

정답은 62p에 있습니다.

10월 QT +

STICK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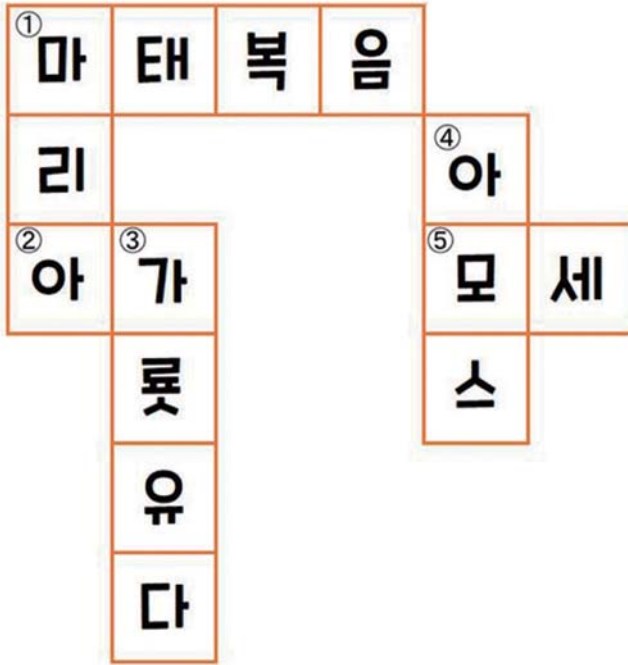
부 학년 반

이름 :



GOD'S TIME	1	2	3	4
첫째주				
둘째주				
셋째주				
넷째주				
다섯째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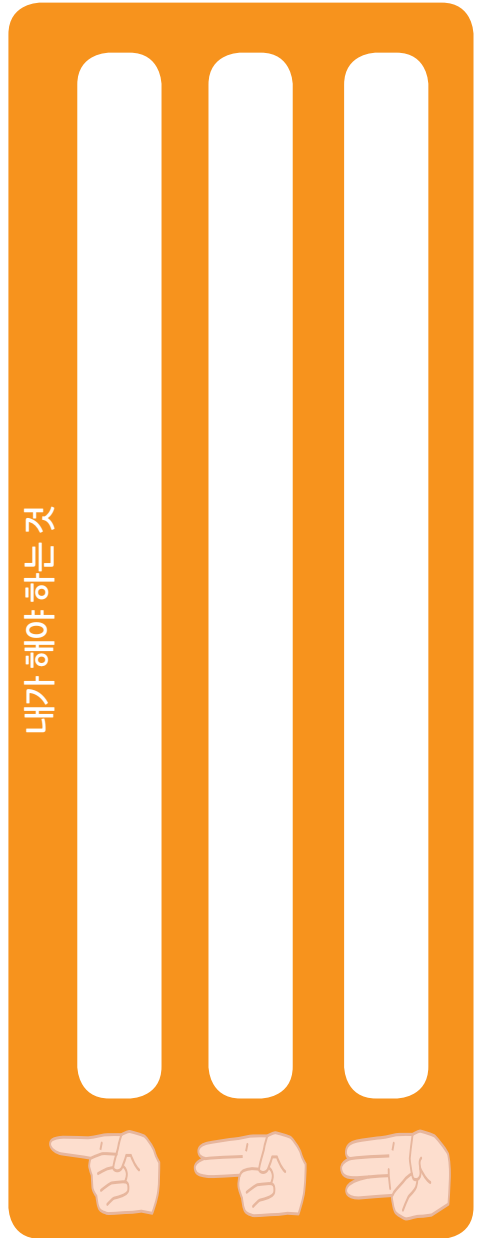
59p 성경퍼즐퀴즈 정답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해야 하는 것



보기 " 내가 하고 싶은 것"	보기 " 내가 해야 하는 것"
1. 부모님께 용돈 받기	1.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2. 직접 음식 요리하기	2. 학교에서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기
3. 하루 종일 잡자기 찬스!	3. 가족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기
4. 놀이공원 가기	4. 선생님이 내주신 숙제 성실하게 하기
5. 재미있는 TV프로그램 보기	5. 길거리에 쓰레기 몰래 버리지 않기
6. 숙제 안하기	6. 친한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기(전도)
7. 놀이터에서 놀기	7. 거짓말 하지 않고 정직하기
8. 컴퓨터 게임하기	8. 자연을 사랑하며 가꾸기
9. 학원 하루 빠지기	9. 가족 중에 믿지 않는 분을 전도하기
10. 피자 & 치킨 먹기	10. 친구를 따돌리지 않기
11. 친구들과 함께 캠핑가기	11. 형제, 자매와 사이좋게 지내기
12. 최신 스마트폰 갖기	12. 가정 예배드리기
13. 친구들과 축구하기	13. 워드(WITH) 성실하게 하기
14.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과 기념사진찍기	14. 신나게 찬양활동 따라하기
15. 세계 여행	15. 열심히 독서하기